

농 촌 잠 언

박 훈 서 (목사, 충북 충주 야촌교회)

▶ 소나무 잎이 곱게 지면 보리농사 풍년든다

소나무 잎이 곱게 진다는 것은 가을부터 기온의 급변이 없이 기온이 서서히 떨어진다는 것이니 이러한 날씨는 월동작물인 보리의 생육에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다.

▶ 한식에 비가 오면 개불알에 이밥이 붙는다

한식에 비가 온다는 것은 봄비가 충분히 내린다는 것을 뜻한다. 하찮은 짐승인 개밥에도 쌀이 많이 들어가 개불알에 이밥(쌀밥)이 붙을 정도가 된다는 말로 풍년이 든다는 뜻이다.

▶ 괴약사리 꽃이 많이 피면 풍년든다

괴약사리(꽃여뀌)는 봄 날씨가 좋으면 꽃을 많이 피우는 식물이다. 따라서 괴약사리 꽃이 많이 피면 봄 날씨가 좋아 모래기가 순조롭고 밭작물 파종이 적기에 이루어져 풍년농사가 된다는 뜻이다.

▶ 가을 안개는 쌀 안개 봄 안개는 죽 안개

쌀과 보리가 주곡인 우리나라에서는 벼가 익을 가을에는 아침안개

가 끼면 날씨가 맑아 벼가 잘 익어 결실이 좋아지게 되고 보리가 익은 봄에는 봄 안개로 보리의 붉은 곰팡이병을 일으켜 결실이 좋지 않으니 같은 안개라도 시기에 따라 좋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.

▶ **까마귀 등지에 솔개 들어 앉는다**

작은 등지에 큰 새가 들어앉는다는 것인데 이는 체격이나 지위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빗대어 한말이다.

▶ **꺼저기 탕에 개구리 죽는다**

꺼저기는 물이 맑고 유속이 그다지 빠르지 않으며 수초가 있는 곳에 서식하는 경골어류 농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써 몸길이는 10cm 정도이며 모양은 긴 타원형으로 생겼다. 매운탕을 끓여먹기에 좋은 물고기이다. 그 탕을 끓이는데 쓸모 없는 개구리가 들어가 죽는다는 것인데 가당치 않는 일에 필요 없이 희생하는 것을 뜻한 말이다.

“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” (베드로전서 4:15)

▶ **꺼먹소도 흰 송아지를 낳는다**

보기 싫은 꺼먹소도 이쁜 흰송아지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사람의 처지가 때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.

▶ **사나이가 부뚜막 맛을 알면 계집을 못 거느린다**

남자가 아내의 일에 너무 간섭하면 불화를 초래하여 집안을 가꿀 수 없음을 이룬 말이다.

▶ **쇠먹미래 같다**

쇠먹미래는 쇠목 밑에 달린 고기로 쇠의 고집을 나타낸다. 남의

말을 아예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고집쟁이를 가리키는 말이다.

“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” (잠언29:1) 農

들풀이야기 - 질경이

교회 앞에 조그만 텃밭을 가꾸는 중 잡초를 캐다가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. “왜 캐내는 것이지? 무엇 때문에 스스로 자라나는 생명을 거두는가? 이것들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은가?” 하고 말합니다. 창세기 1장 29절에 “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”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는 작고 하찮은 들풀에도 분명히 서려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. 요즘 잡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약리효과와 이용가치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.

또 한가지 의문은 왜 밭에 기르는 작물은 그 원산지가 거의 외국산이어야 하는가입니다. 배추, 고추, 참깨, 가지, 상추, 치커리 등 갖가지 쌈채소들과 대부분의 곡물들은 외국의 다산성, 기능성 품목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.

밭에선 이제 오래 전 우리 선조들이 잡수셨던 고유한 먹거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자연의 기운을 타고 생겨나 자연이 가꾼 들풀에서 우리는 우리 몸에 가장 알맞는 신토불이(身土不二)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?

생태공동체 운동가 황대권 씨가 『야생초 이야기』에서 “야초가 쓸